

<2022년 4월 21일 목요일 새벽, 주 말씀>

1. 성령님이 늘 옆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 주냐고 물으니,
“나 성령이 옆에 있으며 늘 돕는다는 것을 믿고 시인하면 된다고 가르쳐 주어라.” 라고 말씀하셨습니다.
2. (성령님) 나 성령과 대화하면, 옆에 있음이 확인된다.
3. (성령님) 몸보다 마음이 빠르다.
4. 성령님이 옆에 계심을 확실하게 느끼도록 몸을 건드려 알게 해달라고 했다. 이에 성령님은 “몸보다 마음이 빠르다. 생각으로 느끼게 해 주겠다.” 하고 말씀하셨습니다. 성령님이 옆에 계심이 순간 느껴져 왔다.
5. 몸보다 마음과 생각으로 빨리 이해되고 확인된다.
6. 저마다 성령님이 옆에 계심을 믿고 시인하여라. 시인해야, 옆에 계셔도 알기 때문이다.